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솔직, 대담한 性

요도, 다치지 않게 조심 조심…

벽지도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창배(가명)씨는 어느 날도 평소처럼 신혼집의 벽지 도배를 맡게 되었다. 10여 년째 하는 일이라 도배라면 눈감고도 자신 있던 이씨는 그날따라 깜박 잊고 업무용 사다리를 챙기지 못했다. 풀 먹인 벽지를 천장에 붙이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의자라도 딛고 올라가야 했다.

심한 통증과 출혈

불안한 자세로 의자의 등받이에 한쪽 발을 딛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이씨, 그만 순간에 미끄러지면서 등받이 윗부분에 회음부(음낭과 항문사이의 부위)를 심하게 찧고 말았다. 이씨는 심한 통증과 함께 요도에서 피가 흘러 신속히 응급실로 내원했다.

남성의 요도는 길이와 생김새면에서 여성과 다르다. 여성의 요도는 곧고 그 길이가 짧은데 반해 남성의 것은 음경에서부터 시작하여 회음부를 거치고, 종국엔 전립선을 통과하여 방광에 이르는 비교적 긴 여정을 거친다. 문제는 요도가 회음부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생기는데 상기와 같이 회음부를 다쳐 요도를 손상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회음부를 지나는 요도를 해부학적으로 구부요도라 부르는데 맨홀에 발이 빠지거나 철봉같은 곳에 회음부를 찧는 경우, 혹은 자전거 등을 타다가 생기는 안장형 손상 등으로 요도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변이 지나는 길이 다치므로 환자는 배뇨가 곤란하며 때로는 배뇨불능 상태에 다다르기도 하며 회음부의 통증과 출혈을 호소한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남성의 요도는 위치에 따라 앞쪽의 전부요도와 뒤쪽의 후부요도로 나뉘는데 사례와 같은 경우를 '전부요도손상'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가장 많은 요도 손상의 원인은 후부요도가 다치는 교통사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골반의 골절과 함께 대부분 후부요도가 손상당하게 되는데, 골반의 압통과 혈종 등을 동반하며 더욱 심한 형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요도가 손상되면 상황에 따라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요도에 집어넣는 요도카테터가 잘 삽입되면 그대로 약 2주간 유치하여 요도의 복원이 되기를 기다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회음부를 통해 손상된 요도를 다시 이어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때로는 배꼽밑에 구멍을 뚫어 그 통로로 소변을 배출시키며 요도의 회복을 도모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한 번 손상당한 요도는 섬유화가 진행되어 자꾸만 좁아지려는 성질을 띠게 되어 '요도협착'이란 병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도협착 환자는 내시경을 보며 협착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요도를 확장시키는 요도확장술이란 시술을 자주 받아야 할 성가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요도 손상, 병 덤으로 얻는다

결론적으로 요도손상은 당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손상과는 달리 그 후유증인 요도협착, 요실금 등이 배뇨와 관련되어 있어, 차후에도 삶의 질을 떨어뜨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통사고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사례처럼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은 미연에 방지하여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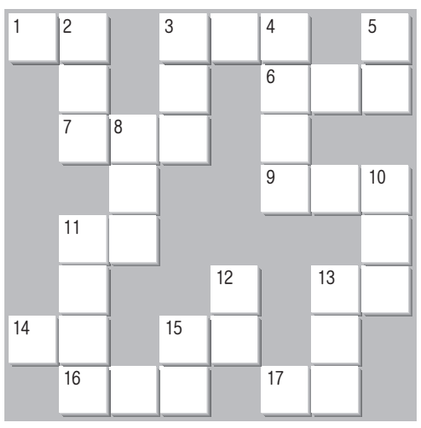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 257 >

→ 가로풀이

1.손자며느리. 3.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6.척추동물의 한 강. 새끼 때는 민물 속에서 아가미 호흡을 하고 자라면 폐가 생겨 뭍에서도 살 수 있는 동물. 난생이며 개구리 도롱뇽 등이 있다. 7.장기나 바둑 등에서, 서로 비기게 되는 수.→빅수. 9.먼저 와 닿는 차례를 이르는 말. ~ 집합!. 공연 입장권은 ~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1.부종(浮腫)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 몸은 산후 조리도 변변찮아 아직 ~가 빠지지 않아 천 근 무게였지만 한참을 걸으니 추위는 가시는 듯했다. 13.차를 타는 일.↔하차. 14.가족의 한 구성원이 주로 결혼 등으로 인해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가는 일. 15.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음. 아내가 워낙 ~이여서 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16.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내리사랑. 17.목록이나 제목, 조항 등의 차례. 그는 책의 ~를 보고 읽고 싶은 곳을 찾았다.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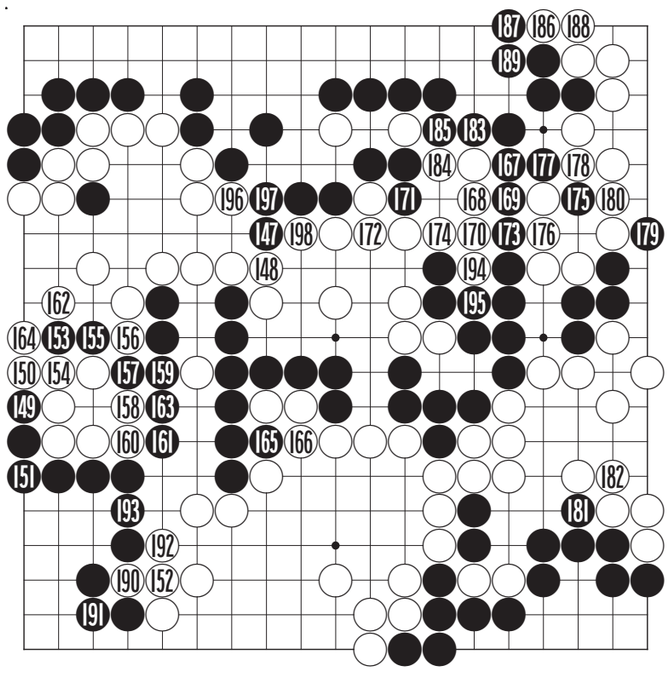
2.주식에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나 반찬 등을 구입하는 비용. 이번 달에는 ~가 너무 많이 들었다. 3.장기에서 상대편의 궁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장군을 부르는 수. 4.아주 먼 바다나 외국수역에 나가 여러 날 동안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과 잡은 물고기를 실어 나르거나 배 안에서 냉동 및 가공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배를 이르는 말. 5.강이나 내의 중간 부분. 상류, ~, 하류. 8.논밭의 잡초를 뽑는 일. 논농사에서는 모내기, ~, 병충해 막기 등의 일을 제때에 해 주어야 한다. 10.보통 경찰 등이 타고 범죄나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 11.생산 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 영화 산업의 ~는 웬만한 제조업을 능가한다. 12.필기도구, 계산기, 수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함.→속셈. 13.주로 7명 이상을 운송하기에 알맞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이르는 말. 15.빨강, 파랑과 더불어 컬러 사진이나 그림물감 등의 감산 혼합으로 색을 표현할 때에 삼원색을 이룬다.



〈함께 풀어봅시다 256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박지숙·광주시 북구 오치동
기은이·광주시 동구 월남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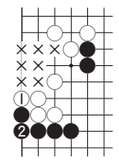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단체 2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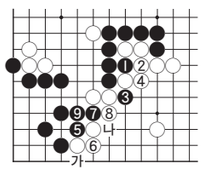
홀린듯한 패착

7보(147~198)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전지용 5단 (조선대)



〈참고도 1〉



〈참고도 2〉

흑이 결정타를 몇 번이나 놓치고 있다. 전지용 5단은 초읽기에 몰린 탓인지 흘린듯이 149로 밀고 들어갔는데 이 수가 마가 낀 수로 마지막 패착이 되었다.

전 5단은 다음 153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 선수라고 생각한 것 같으나 164까지의 결과는 '참고도1'에서 보는 것처럼 내버려두더라도 똑같은 7집이다. 물론 중앙에 한두집 보탰으나 귀중한 선수를 엉뚱한 곳에 허비했다.

유병수 5단이 잽싸게 152에 둔 수가 의외로 큰 곳이다. 흑 149로는 '참고도2'의 흑 1부터 9까지를 결정할 찬스였다. 다음 '가'의 선수도 보장되어 이랬으면 오히려 흑이 부가 있는 승부였던 것이다.

193까지 쓰라리게 당하고도 결과는 2집 반의 차이였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광주 KIXX, 월드 메르디앙 꺾어

광주 KIXX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7한국바둑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경북 월드메르디앙을 3-2로 꺾었다.

리그 전적 2승3패를 기록한 KIXX는 리그 순위 5위에 올랐다. KIXX는 첫날 박승철과 이희승이 연패를 당했으나, 이튿날 김기용과 이창호가 각각 윤준상과 박정환을 제압, 2-2패를 만든 뒤 김승준이 1승을 보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대구 영남일보가 충북 제일화제를 3-0으로 꺾고 5승으로 단독선두를 지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70. 세계적 여성인권 운동가와 여성학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포럼 기간에는 아프가니스탄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말라라이 조야,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이스라엘 여성 루차마 마톤, 파키스탄의 세계적 여성운동가 무크타르 마이 등 세계적 민주·인권 여성운동가 등 국내외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무슨 회의일까요?

①세계여성평화포럼 ②제주 평화포럼
③참여정부 평가포럼 ④정부 혁신 세계 포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음 5월 11일 庚寅)

子 36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48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60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72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84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1, 38

丑 37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49년생 큰 고통은 없다. 61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3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85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2, 43

寅 38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0년생 절대 신규 사업에 참여치 마라 큰 손해가 있다. 62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74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吉事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3, 45

卯 39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1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3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75년생 신중한 긴 안목으로 보라. 행운의 숫자 : 09, 10

辰 40년생 될 듯 될 듯한 구상만 있고 낭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2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64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침착성을 잃지 마라. 76년생 혹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치 마라. 행운의 숫자 : 18, 20

巳 41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다. 53년생 모든 외형을 실리위주로 바꿔라. 65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77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 27, 31

午 42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4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6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78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5, 13

未 43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7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79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 된다. 행운의 숫자 : 0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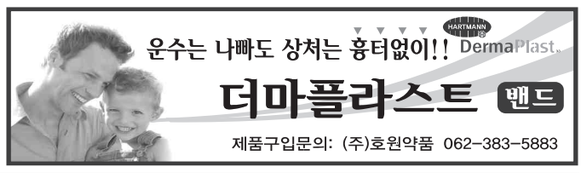
申 44년생 적시에 마무리 작업으로 외형을 줄이고 실리 편으로 집중하라. 56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8년생 생기가 발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80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7, 17

酉 45년생 주변의 식구가 줄어들 수 있다. 57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나 서둘지 않아야 한다. 69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시기상조니 마지막 조심을 하고 또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2, 04

戌 46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58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70년생 시기상조이나 숨통이 터진 기분이다. 82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 22

亥 47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9년생 부친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71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 83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며 시비 송사가 발생 수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1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933>

What's a karaoke?

가라오케가 뭐죠?

A:Going to a karaoke should be part of your GwangJu experience.
B:**What's a karaoke?**
A:I guess you can call it a sing-along pub for amateurs. So, how about it?
B:Well, I have to tell you, I'm a very lousy singer.

A:광주에 오시면 가라오케에 한번 가보시죠.
B:**가라오케가 뭐죠?**
A:아마츄어를 위해 마련된 노래할 수 있는 술집이라 부르면 될 거예요. 그러니,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B:음,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노래를 못합니다.

pub : 술집
lousy : 시끄러운
음료 좀 더 갖다 주세요.
= I'd like to order more drinks, please.
저희는 옛날 한국가요를 부르고 싶은데요.
= We'd like to play some old Korean song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33>

だめもとで言(い)ってみるのよ

밑져봐야 본전으로 말해보는 거에요

A:おっ、木村さん今日の服 素敵(すてき)だ。
B:そう、ありがとう。私一目(ひとめ)で氣(き)に入(い)っちゃって、どうしても欲(ほ)しくて値切(ねぎ)って買(か)ったの。
A:でも、この頃は安賣(やすう)りの店(みせ)が多いから、'負(ま)けてください'なんて言(い)いにくいよね。
B:そこを、**だめもとで言(い)ってみるのよ**。

A:오, 기무라씨, 오늘 입은 옷 멋있는데.
B:그래요. 감사합니다.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꼭 갖고 싶어서 깎아서 샀어요.
A:하지만 요즘 싸게 파는 가게가 많으니까 "깎아 주세요"라는 말하기 힘들어요.
B:그 점(상황)을 **밑져봐야 본전으로 말해보는 거에요.**

一目(ひとめ) : 첫눈
安賣(やすう)りの店(みせ) : 싸게 파는 가게
言(い)いにくい : 말하기 어렵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24>

我挂号

저 접수 하려구요

A:护士，**我挂号**。
Hùshi, wǒ guà hào。
후스, 워 꾸아 하오.
B:请问挂什么科？内科还是外科？
Qǐng wèn guà shénme kē? nèikē háishi wàikē?
칭 원 꾸아 션머 커? 네이커 하이스 와이커?
A:我挂内科，谢谢。
Wǒ guà nèikē, xièxie。
워 꾸아 네이커, 씨에 씨에.
B:好的，请先量一下儿体温。
Hǎo de, qǐng xiān liàng yí xiàr tǐwēn.
하오 더, 칭 씨엔 리앙 이씨알 티원.

A: 간호사 선생님, **저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B: 실례지만 어느 과에 접수 하시겠어요? 내과요 외과요?
A: 저는 내과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B: 네, 먼저 체온부터 재겠습니다.

挂号	[guàhào]	등록하다 접수시키다
内科	[nèikē]	내과
外科	[wàikē]	외과
量体温	[liàng tǐwēn]	체온을 재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50>

瓦 解 (와 해)

기와 와, 풀 해

와해(瓦解)는 기와가 풀어진다는 뜻이다.

와(瓦)는 지붕 위의 기와가 포개져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해(解)는 소(牛)+뿔(角)+칼(刀)로 이루어져, 칼(刀)로 소(牛)의 뿔(角)을 자르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소를 잡다'를 의미하다가 '나누다' '풀다'로 사용되었다.

기와는 오래전부터 집을 짓는데 사용하여온 지붕재이지만 그 자체는 매우 나약하다. 땅에 떨어지면 박살이 난다. 그래서 오합지졸(烏合之卒)과 같은 말로 와합지졸(瓦合之卒 : 기왓장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軍士)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진시황(秦始皇)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으나 불과 5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런 기막힌 붕괴를 두고 사마천(司馬遷)은 "天下가 기울기 시작하니 마치 흙처럼 무너지고(土崩) 기왓장처럼 와르르 쏟아지게(瓦解) 되었다."(史記)고 표현 하였다.

이처럼 '와해'는 토붕와해(土崩瓦解)에서 나온 말로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와르르 쏟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무너진 기왓장은 조가조각 부서지므로 다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일이나 사물이 '끝장난 것'을 말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